

12월, 역사의 갈림길에서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2월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안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달 19일(수)은 대통령 선거일로 우리는 모두 역사의 갈림길인 선택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197,80년대 인권 회복과 민주화를 위해 몸 바쳤던 많은 동지들이 지금은 의욕을 상실한 채 망연자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주개혁 평화세력이 모두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달 19일(월)에 백낙청 교수를 비롯한 뜻 있는 분들이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패배주의란 말을 듣고 좀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패배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시대적 진단이란, 공동체에 대한 진단이기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핵심은 패배주의를 극복하기만하면 희망이 있고 승리가 보장된다는 선언과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단어 곧 kronos와 kairos란 말마디가 있습니다. kronos란 나의 의식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시간(time)이며 kairos는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때'(moment), 곧 결정적 순간을 말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의식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역사의 시간 안에서 역사를 만드는 '때'를 만들고 포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순간, 바로 그 '때'에 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끝나 해방을 맞았을 때 일제와 맞서 목숨을 걸고 독립을 쫓았던 분들은 약 5천 여 명 정도였다고 강만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유신 독재와 신군부 독재 때에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쳤던 분들은 약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1987년 6월항쟁 때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민주화의 염원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때'의 깨어 있던 민중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단합하기만 한다면 1987년 그 기적의 변화를 바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모두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주개혁 평화통일을 주창하는 여러 후보자들도 모두 분열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달 19일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가장 큰 가치임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대통령 후보군은 분명히 과거회귀 수구냉전 세력 대 민주개혁 평화통일 세력으로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민주개혁 세력 내의 자그만 차이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금 한반도는 대약진의 기회 앞에서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화해 실현 가능성과 함께 남북의 협력과 일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단합과 일치 그리고 연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이 시점에서 후보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손 놓고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길잡이로 우리는 또 새로운 희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공통점을 기초로 민주 연합정부 또는 민주 연합정책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구 냉전 세력에 의해 역사가 후퇴하는 것을 우리는 온몸을 던져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요구이며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비자금과 관련 부패추방이라는 공통 가치를 확인하면서 민주개혁 평화 후보자들이 꼭 연대하고 단합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적을 이룩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때'입니다.

인권회복과 민주화 그리고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던졌던 열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민주개혁진영의 후보자들이 단합과 연대를 꼭 이루도록 재촉하며 기도 드립니다.